



2005년 11월 2일

롤스-로이스, 중국 조선시장 목표로 상하이에 공장 신설

롤스-로이스는 세계 최대 민간 조선시장인 아시아 지역의 제품 공급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 생산 공장을 신설했다. 한국 부산에서 운영 중인 생산공장과 함께 상하이 신설공장은 동북아의 새로운 생산허브를 구축해 조선소에 해양선박장비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의 조선시장은 현재 연간 약 190억 파운드 규모로 전세계 80%를 차지하며 2004년도의 신규주문과 공급물량은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롤스-로이스 해양선박 부문 사울 래냐도(Saul Lanyado) 사장은 “이번 상하이 공장 준공은 롤스-로이스의 약동적인 발전의 일환이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확장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덕분에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생산을 증대시켜 기존에 비해 더 빠르고 경쟁력 있게 아시아와 중국에서 조선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은 중국에서 롤스-로이스의 운영을 확장함에 있어 장기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며 한국내 롤스-로이스 공장과 함께 동북아 시장의 허브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조선산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National Shipbuilding industry) 첸 창유(Chen Changyu) 부위원장은 “세계적인 업체인 롤스-로이스의 공장을 중국 상하이에 신설해 기쁘며 롤스-로이스가 중국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중국의 업체들과 향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7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2006년 중반까지 150명으로 늘릴 상하이 공장은 9,000m²의 면적에 건설되었으며 롤스-로이스가 현재까지 중국에 대한 투자금액으로는 최대규모이다.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 조립하게 될 제품은 터널 쓰러스터 (tunnel thrusters), 러더 (rudders), 콘트롤 및 스티어링 시스템 (control and steering systems) 및 갑판기계 등이다.

롤스-로이스는 베이징, 상하이, 다롄 및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중국 10개의 항공사에 항공기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롤스-로이스는 중국의 동중국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East China Gas Pipeline Project)에 파이프라인 컴프레션 장비(pipeline compression equipment)를 공급한 바 있다.

Note :

1. 롤스-로이스의 해양선박 사업분야에서는 전세계 34개 국가에서 7,0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제조공장은 영국, 북유럽 및 미국이며 현재 아시아에 확장되고 있다.

2. 상하이 공장의 모든 직원들은 전세계 롤스-로이스 공장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을 받았다.
3. 중국의 협력업체들은 롤스-로이스의 유럽공장들과 함께 대형 기계부품들을 제조해 필요한 곳에 고성능 장비를 제공한다. 제품에 대한 최종 실험 및 조립은 상하이 공장에서 이뤄진다.

문의:

CPR 차유정 이사 02-739-7353 / junecha@icpr.co.kr
추윤희 팀장 02-739-7366 / katechoo@icpr.co.kr
박수진 02-739-7349 / sjpark@icpr.co.kr